

# 秋史 金正喜의 尙書 今古文論과 僞書考證

金 萬 鎰\*

1. 머리말
2. 상서 금·고문론을 통한 위서고증
  - 1) 漢代의 상서 - 금문·고문·일서 16편
  - 2) 梅賾 『古文尙書』의 위서고증
  - 3) 蔡沈 『書集傳』의 오류
3. 상서의 금문·고문 분류와 『서집전』의 금고문 고증
  - 1) 금문과 고문의 분류
  - 2) 고문의 분류
  - 3) 금문의 분류
4. 十六言說의 위서고증
5. 맺음말

## - 요약문 -

이 논문은 『완당집』에 수록된 추사 김정희의 상서에 대한 저술과 응와 이원조의 문집에 실린 「위고문십육언설변」에 대하여 분석·고찰한 것이다. 김정희는 한대에 출현한 상서 금문 고문에 대하여 밝히고, 이것과 비교를 통하여 매색의 『고문상서공전』이 한대 상서의 금문·고문과 관련이 없는

---

\* 한림대학교. mikim@hallym.ac.kr

위서임을 고증하였다. 또한 채침의 『서집전』이 매색본을 이어 받은 것을 밝혔다.

상서 금문과 고문의 전래과정과 변천을 기준으로 하여 금문을 두 가지로 고문은 네 가지로 분류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서집전』의 고문은 당대에 개작된 광충서의 고문을 이어 받은 것이며 금문 또한 당대에 위포의 개작본을 이어 받은 것으로 한대의 금문 고문과는 다른 것임을 밝혀냈다. 김정희는 금문·고문에 대한 분류를 통하여 채침전의 오류를 지적하고 채침전에만 의거하여 금문·고문을 논한다면 왜곡된 결론에 이를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것은 당시 조선에서 채침의 『서집전』을 유일한 주석본으로 사용해온 것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김정희가 「상서금고문변」을 통해서 고증하고자 한 것은 매색의 『고문상서공전』이 위작임을 밝히고 채침의 『서집전』의 오류를 밝히려는 것이다.

응와 이원조의 문집에 실린 「위고문십육언설변」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이 글 가운데 김정희의 글이 인용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人心惟危, … 允執厥中’의 열여섯 글자가 『순자』에서 나왔으며 매색이 만든 것이라고 밝힌 김정희의 「위고문십육언설」의 일부를 확인하였다. 제주목사였던 이원조는 제주 대정으로 유배 온 김정희로부터 「위고문십육언설」을 받아 보고서, 이에 대해 고증학적 방법으로 경전을 연구하려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김정희의 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비판하였다.

**주제어** : 김정희, 「尙書今古文辨」, 매색, 채침, 『書集傳』, 이원조, 「僞古文十六言說辨」

## 1. 머리말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 1786~1856)가 청의 학자를 비롯한 당시 학자들과 주고받은 편지글에서 학문에 대해 토론한 내용을 보면, 그의 광범위한 학문적 관심과 깊이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그가 직접 작성한 장서 목록을 통해서도 간취할 수 있다.<sup>1)</sup> 그러나 『완당집(阮堂集)』에 수록된 글 가운데에는 학술과 경학에 대한 저술이 너무도 미미해서 추사의 학문을 연구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사정이 그 한 원인이기도 하겠으나 지금 김정희에 대한 연구는 서체와 예술세계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고 학술이나 경학에 대한 것은 많지 않다. 그의 학술사상에 대한 연구는 실사구시론 정도가 일정 연구 되어 있을 뿐이고, 경학에 관한 연구 몇 편에 불과하다. 김정희의 경학에 관한 구체적인 모습이 밝혀질 때, 그의 실사구시론·한송불분론 등의 학술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검증·확인 될 것이다. 아울러 서예론을 비롯한 예술론과의 상호 관련 연구를 통해 사상의 총체적인 모습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김정희의 경학에 대해서 역(易)·예(禮)·시(詩)·서(書)등 각 경전별로 그 내용과 성격이 연구되어야만 그의 경학사상이 전체적으로 조망될 수 있을 것이다.

『완당집』에는 여타경전에 대해 언급한 것과 비교해볼 때 상서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논한 글이 있어 그의 상서론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김정희의 상서론에 대한 연구는 후지츠키 지카시와 전해종이 부분적으로 간략하게 언급한 이래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단 한편의 연구논문도 없는 실정이다.<sup>2)</sup> 본 논고는 위와 같은 의미에서 김정희의 상서에 관한 저술인 「상서금고문변(尙書今古文辨)」과 『응와집(凝窩集)』에 수록된 「위고문십육언설변(僞古文十六言說辨)」에 대해서 그 내용과 성격을 살펴봄으로써 그의 경학사상의 일단을 분석·고찰해보고자 한다.

김정희는 이장옥(李璋煜)에게 보낸 편지에서 청대의 많은 학자들의 학문

1) 藤塚鄰 著, 윤철규·이충구·김규선 옮김, 2009, 『秋史 金正喜研究(原題: 清朝文化東傳의 研究)』, 과천문화원, 940쪽. 阮堂自筆藏書目錄과 諸家收藏阮堂舊藏目錄이 수록되어 있다.

2) 全海宗, 1963, 「清代學術과 阮堂」, 『大東文化研究』 1.

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였는데, 그 속에서 그가 청대의 학술을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이 가운데 특별히,

저는 담계(覃溪)에게 습숙(習熟)한 사람이지만 모든 것에서 세세하게 그를 따르거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꽤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크게 달라서 진실로 감히 같지 않게 한 것이 있으니, 서경의 금문과 고문입니다.<sup>3)</sup>

라고 하여 상서의 금문·고문에 관한 자신의 설이 옹방강(翁方綱, 1733~1818)과는 다른 독자적인 것임을 밝혔다. 김정희는 자신학문에 대해서 옹방강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오직 그의 설만 따른 것은 아니며 최술(崔術, 1740~1816)이나 대진(戴震, 1724~1777) 등 여러 학자들의 설을 주체적으로 수용하였다고 하였다. 김정희의 상서에 관한 저술은 옹방강의 설과는 다른 점이 있지만 요약거를 비롯하여 완원(阮元, 1764~1849)·왕희손(汪喜孫)·최술·대진 등 많은 청대 경학자의 설을 토대로 하였음을 볼 수 있다.

『원당전집』에는 상서에 대한 기록이 매우 적어서, 「상서금고문변」 상·하 두 편과 서간문 속에서 언급한 몇몇 단편적 기사에 불과하다. 「상서금고문변」은 현대의 금문·고문의 출현에서부터 매색의 『고문상서』를 거쳐 당대(唐代)에 착찬된 『상서정의』와 채침의 『서집전』에 이르기까지 위서(僞書)가 전래된 과정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금문과 고문을 분류하고 그 성격을 구체적으로 고증한 내용이다.

이 글 제2장에서는 「상서금고문변」 상편에 대한 내용을 고찰하였다. 상편에서 김정희가 현대의 금문·고문상서의 출현과 전래, 그리고 매색의 『고문상서』가 위서임을 고증하고 채침의 『서집전』이 이를 이어받음으로써 발생한 오류에 대해 논증한 내용과 성격을 분석·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김정희가 상서 금문과 고문에 대한 당시의 오해에 관한 지적과, 상서 금·고문에 대한 분류를 시도한 것을 고찰하였다. 아울러 김정

3) 金正喜, 2005, 『阮堂全集』卷5, 「與李月汀璋煜」, 과천문화원, 382쪽.

회가 금문·고문에 대한 고증을 통해서 제기한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김정희의 상서고증에 대해 응와 이원조가 반박한 「위고문십육언설변(僞古文十六言說辨)」이 그의 문집인 『응와집』에 실려 있다. 이 글은 이원조가 제주목사로 부임해서, 대정에 유배된 김정희의 「위고문십육언설(僞古文十六言說)」을 받아보고 이에 대해 반박한 글이다. 김정희의 「위고문십육언설(僞古文十六言說)」은 『완당집』에는 실려 있지 않다.

제 4장에서는 이원조의 글을 통해 제시된 김정희의 위서고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김정희의 주장에 대한 이원조의 비판을 분석하였다.

## 2. 상서 금·고문론을 통한 위서고증

### 1) 漢代의 상서 - 금문·고문·일서 16편

진대(秦代)의 병화 이후 한대에 출현한 상서에 대해서 『한서·예문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진나라가 책을 불태우고 학문을 금하였다. 제남(濟南) 복생(伏生)이 벽에다 갈무리하였다. 한나라가 일어났으나(벽에 갈무리한 것을) 잃어버리고 29편을 찾아서 제·노(齊魯) 사이에서 가르쳤다. 효·선(孝宣)세에 이르러 구양(歐陽) 대·소하후씨(大小夏侯氏)가 있어 학관에 세워졌다. 고문상서는 공자의 벽에서 나왔다. 무제(武帝) 말기에 노공왕(魯共王)이 공자의 집을 헐어 그의 궁궐을 넓히고자 하다가 고문상서와 『예기』·『논어』·『효경』 수십 편을 찾았는데 모두 고자(古字)였다.<sup>4)</sup>

『한서』에서는 한대에 출현한 상서를 복생이 구술한 ‘복생본’과 공자의 구택 벽간에서 나온 고문상서, 두 종류로 나누었다. 이 기록에 이어 벽간에서 나온 고문상서를 복생본 29편과 대조하여보니 16편이 더 많았는데 이를 비부에 보관하였다고 기록되어있다.<sup>5)</sup>

4) 『漢書·藝文志』.

김정희는 『한서』와는 달리, 금문상서와 고문상서 외에 또 일서(逸書) 16편이 있다고 하여, 일서를 금문상서·고문상서와 별도로 구분하여 언급하였는데,6) 일서 16편을 금문상서·고문상서와 더불어 세 부분으로 구분한 것이 『한서·예문지』와 다른 특징이라 하겠다. 김정희가 일서 16편에 주목한 것은, 매색의 『고문상서』에 수록되어 있는 일서 16편과 한대의 일서 16편과 비교하기 위해서이다.

먼저 김정희는 금문상서에 대해 ‘복생본’이라고 소개하고서,7) 금문자로 썼기 때문에 ‘금문상서’가 되었다고 하였다8). 고문상서에 대해서는 ‘공벽본(孔壁本)’이라고 하였는데,9) 명칭에 대해서도 고문자로 써서 있어서 ‘고문상서’라 한다고 하였다.10)

이어서 금문·고문·일서의 편수와 편명에 대한 것을 고증하였다. 먼저, 금문상서의 편목은 「요전(堯典)」에서부터 「태서(泰誓)」까지 모두 28편이며,11) 고문상서는 모두 31편으로 그 중에 28편은 금문상서와 동일하다고 하였다. 나머지는 금문상서 가운데 「반경(盤庚)」편을 상·중·하 세 편으로 나누고, 「고명(顧命)」을 다시 「고명」과 「강왕지고(康王之誥)」 두 편으로 나눔으로써 모두 3편이 늘어나게 되어서 모두 31편이 되었다고 하였다.12) 이어서 일서 16편의 편명을 제시하였는데,13) 이 중에서 「순전(舜典)」·「익직(益稷)」·「오자지가(五子之歌)」·「윤정(允征)」·「탕고(湯誥)」·「함유일덕(咸有一德)」·「무성(武成)」·「여오(旅獒)」·「경명(罔命)」 9편은 수나라 때 조정에 바쳐진 매색의 『고문상서』 58편에 원문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나머지 7편은 원

5) 『漢書·藝文志』.

6) 金正喜, 「尙書今古文辨上」, 『經學資料集成』, 성대대동문화연구원, 833쪽.

7) 앞의 책, 833쪽. “今文尙書者, 伏生本也.”

8) 앞의 책, 833쪽. “以今文字書之, 故爲今文尙書也.”

9) 앞의 책, 833쪽. “古文尙書者, 孔壁本也.”

10) 앞의 책, 833쪽. “以古文字書之, 故爲古文尙書也.”

11) 앞의 책, 833쪽.

12) 앞의 책, 833쪽. “二十八篇, 與今文同, 而析盤庚爲三篇, 析顧命康王之誥爲二篇, 爲三十一篇.”

13) 앞의 책, 834쪽. 일서 16편의 편목은 다음과 같다. 「舜典」·「汨作」·「九共」·「棄稷」·「五子之歌」·「允征」·「湯誥」·「咸有一德」·「典寶」·「伊訓」·「肆命」·「原命」·「武成」·「旅獒」·「罔命」.

문이 없고 서서(書序)만 수록되어 있다. 일서 16편은 공안국에 의하여 조정에 바쳐져서 비부에 보관되어 후대에 전해지지 못하였다. 복생본에도 없고 공안국본에도 없는 것이 후대의 상서 저작에 본문까지 수록된 것은 그 출처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김정희가 한대의 금문·고문·일서에 대해서 고찰하여 밝혀놓은 것은, 이를 통해 매색의 『고문상서』가 위작임을 밝히고 채침의 『서집전』의 오류를 검증하고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현대 상서의 구체적인 편목을 일일이 고증한 것도 편목비교를 통하여 상호 관련성이 없음을 밝히려는 것이다.

## 2) 梅賾 『고문상서』의 위서 고증

김정희는 매색의 『고문상서』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분석하고 고찰하였는데, 이것은 「상서금고문변」을 저술한 주요한 목적이 매색의 『고문상서』가 위작임을 논증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매색의 『고문상서』는 『수서·경적지』에 의하면, 동진(東晉)의 예장내사(豫章內史) 매색(梅賾)이 고문상서에 공안국이 주석한 『고문상서공안국전』을 구하여 조정에 바쳤으나, 당시에는 학관에 채택되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sup>14)</sup>. 그런데 김정희는 이 매색의 『고문상서공안국전』을 ‘매색의 위고문은 지금 통행본으로서 금문도 아니고 고문도 아니다’고 하여 금문도 고문도 아닌 별개의 본으로 규정하였다.<sup>15)</sup> 지금의 통행본이라는 것은 매색의 위고문상서가 당대에 편찬된 『상서정의』의 저본이 됨으로써 중국에서 통행되었고 후에 심삼경주소에 수록된 점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조선에서도 양난 이전까지는 채침의 『서집전』이 주로 통행되었지만, 김정희가 생존하였던 조선후기에 이르러 매색본을 이어받은 『상서정의』가 주요한 상서 주석서로서 통행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한대에 출현한 복생본 금문상서나 공벽본 고문상서와도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4) 『隨書』卷32, 「經籍志」. “至東晉, 豫章內史梅賾, 始得安國之傳, 奏之.”

15) 앞의 책, 834쪽. “梅賾僞古文者, 今通行本, 非古文, 又非今文也.”

김정희는 매색의 고문상서가 위서라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고증하였다. 첫째는 한대에 출현한 상서와 편목 구성을 비교해 볼 때, 매색의 고문상서에 포함된 편목이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는 상서 금고문 학자들을 통한 전래과정에서도 매색의 위고문의 전래 과정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먼저 매색의 위고문 편목 구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매색의 위고문은 지금의 통행본으로서 고문도 아니고 금문도 아니다. 진고문 31편 이외에 「대우모(大禹謨)」·「오자지가(五子之歌)」·「윤정(允征)」·「중휼지고(中虺之誥)」·「탕고(湯誥)」·「이훈(伊訓)」·「태갑(太甲)」·「함유일덕(咸有一德)」·「열명(說命)」·「태서(泰誓)」·「무성(武成)」·「여오(旅獒)」·「미자지명(微子之命)」·「채중지명(蔡仲之命)」·「주관(周官)」·「군진(君陳)」·「필명(畢命)」·「군아(君牙)」·「경명(罔命)」 19편이 있다. 「태갑」·「열명」·「태서」를 각 3편으로 하여 모두 합쳐서 25편이 되었다. 진고문(眞古文) 31편과 합하여 56편이 되었다.<sup>16)</sup>

진고문은 한대에 공자의 구택 벽간에서 출현된 고문상서를 말하는 것이다. 벽간서인 고문상서가 31편인데 여기에 「대우모」에서부터 「경명」에 이르기까지 19편이 더 있고, 여기에다가 「태갑」·「열명」·「태서」는 진고문상서에서는 한 편으로 되어 있던 것을 매색이 각각 3편으로 나눔에 따라 모두 6편이 더해져서, 총 25편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 25편을 진고문상서 31편과 합하면 모두 56편이 된다. 여기에다가 「요전(堯典)」에서 ‘愼徽五典’ 이하를 분리하여 「순전(舜典)」으로 만들고 「고요모(皐陶謨)」에서 ‘帝曰來’ 이하를 「익직」으로 분리함으로써<sup>17)</sup> 매색의 『고문상서』는 모두 58편이 되었다.

김정희는 먼저 상서의 편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김정희의 고증에 의하면 한대의 상서에는 금문·고문·일서가 있는데, 그 편수를 계산해보면 고문은 금문의 28편과 일치하고 추가로 세편이 더 있어

16) 앞의 책, 834쪽.

17) 앞의 책, 834쪽.

모두 31편이고 이외에 일서 16편이 더 있었다. 매색의 위고문은 고문 31편 외에 19편이 더 있다. 양자를 비교해 보면 한대의 상서 편수는 금고문 31편 외에 일서 16편이 있고 매색본은 고문 31편 외에 19편이 더 있다. 매색본의 19편과 공벽본 일서 16편을 대조해 보면 그 편수가 같지 않다. 따라서 매색본에 수록된 19편은 한대의 일서 16편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별도의 것이 된다.

김정희는 또 매색본 19편과 한대의 일서 16편의 편목을 대조하여, 매색본이 한대 상서와 관련이 없음을 고증하였다. 매색본의 19편 중에 수록되어 있는 「중취지교」 등 10편은 전래과정에서 이미 망실되어 일서 16편에도 없고 공벽본 고문상서에도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sup>18)</sup> 이미 망실되어 한대에도 보이지 않는 상서 편목이 그 후 동진대 매색의 상서에 보이는 것은 그 진위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김정희는 한대에 고문상서·금문상서 학파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전한대에는 금문상서학이 학관에 세워져서 흥성하였으며<sup>19)</sup> 후한대에는 고문상서학이 융성하였음을 밝히고,<sup>20)</sup> 각 학파의 학자들을 일일이 제시하였다.<sup>21)</sup> 일단 김정희의 금·고문상서학파의 명단을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兩漢代 金문·고문 상서학파 -

| 구분   | 경학가  | 비고        |
|------|--|-----------|
| 금문상서 | 伏生, 歐陽氏, 大小夏侯氏, 司馬遷, 董仲舒, 王褒, 劉向, 谷永, 孔光, 王舜, 李尋, 楊雄, 班固, 楊統, 楊賜, 蔡邕, 趙岐, 何休, 王充, 劉珍 | 前漢代<br>성행 |
| 고문상서 | 孔安國, 劉歆, 杜林, 衛宏, 賈逵, 徐巡, 馬融, 鄭康成, 許慎, 應劭, 徐幹, 韋昭, 王粲, 虞翻                             | 後漢代<br>성행 |

18) 앞의 책, 835쪽. “蓋梅賾僞古文, 與孔壁逸書十六編, 非止編數不同而異, 又其書已亡而不在逸書中者, 如中應之誥者等十篇, 是孔壁之所未有也.”

19) 앞의 책, 833쪽.

20) 앞의 책, 833쪽.

21) 앞의 책, 833쪽.

위 도표를 보면 금문상서는 전한대에 성행하였고 고문상서는 후한대에 성행하였는데, 김정희는 양한에 걸쳐서 많은 다양한 주석서가 있었지만 금문과 고문에 커다란 차이가 없음을 다음과 같이 논증하였다.

사마천은 공안국에게서 배웠다. 그래서 『사기』중에는 고문설을 많이 채용하였지만 사마천은 또한 금문상서를 전공하였다. 두림(杜林) 이하로 서로 전해져온 칠서고문(漆書古文)은 그 편수가 금문 28편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공안국의 전본(傳本)으로, 「반경」편을 나눈 것이 조금 다를 뿐이다. 고문설과 금문설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sup>22)</sup>

사마천은 공안국에게서 고문상서를 배워서 『사기』에 공안국의 고문설을 채용하였지만, 금문상서도 아울러 전공하였다. 고문상서학파인 두림 이하로 서로 전해온 칠서고문은 그 편수가 금문 28편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곧 공안국본이 전해진 것인데, 다만 한 편이던 「반경」을 세 편으로 나눈 것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금문상서학파인 사마천의 『사기』에는 금·고문상서가 다 관련되어 있고, 고문학파인 두림의 칠서고문은 금문과 편수가 같으며 공안국의 고문본이라는 것이다. 즉 공안국본은 그 전래에서 금·고문설이 서로 상통되어 있으며 양자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으로 공안국본이 한대에 출현한 상서의 금·고문에 공통되는 대표적인 판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김정희의 주장이다. 매색은 자신이 찾아서 조정에 바친 고문상서를 한대의 공안국본이라고 하였는데, 김정희는 한대의 공안국본과 합치되는 않는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였다.

어찌 일서(逸書)와 망서(亡書)가 매색본처럼 번갈아 출현할 수 있겠는가? 공벽본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을 매색은 어디에서 찾아내었는가? 전허사설(師說)이 없는 것을, 매색은 어디에서 공벽본이라는 것을 찾아내었는가?<sup>23)</sup>

---

22) 앞의 책, 837쪽.

23) 앞의 책, 833쪽.

김정희가 품은 의문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서와 망서가 어찌하여 매색의 『고문상서』에 번갈아 나타날 수가 있는가? 일서는 공자구택에서 나온 벽간본 중에서 공안국본에 포함되지 않고 비부에 보관된 16편을 말하는 것이고, 망서는 공자가 편찬한 상서에는 있었으나 한대에는 전해지지 않는 망실된 편을 말한다. 이러한 망서·일서는 전해지지 않는 것인데 매색이 바친 『고문상서』에 수록되어 있다.

둘째, 공벽본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을 매색은 어디에서 구하였는가? 공자의 구택에서 발견된 벽간본 고문상서는 공안국에 의해서 후대에 전해졌는데, 여기에도 없는 내용이 매색의 『고문상서』에 수록되어 있다. 김정희는 매색이 이것을 어디에서 찾았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셋째, 전혀 사설(師說)이 없는 공안국본을 어디에서 찾았는가? 일서 16편에 대해서는 전혀 주석을 붙인 사설이 없는데 매색의 『고문상서』에는 이 일서편에 대하여 공안국의 주석이 수록되어 있고, 공안국전(孔安國傳)이라고 하였다. 매색이 ‘공안국전’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구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전래되지 않는 일서와 망서가 매색본에 수록된 점, 한대의 공안국본에 없는 편명이 매색본에 수록된 점, 그리고 한대에 주석이 없던 일서가 공안국 주석으로 매색본에 수록된 점을 지적하여 매색이 ‘공안국전’이라고 조정에 바친 것이 한대의 ‘공안국전’이 아닌 위서임을 고증하였다.

김정희는 전래의 근거가 없는 매색의 『고문상서공안국전』이 세상에 통행되기에 이른 과정에 대하여 논증하였다. 남북조시대에 동진의 예장내사인 매색이 『고문상서공안국전』을 찾아서 조정에 바쳤는데, 남북조 사람들은 학풍이 나뉘어 서로 원수처럼 적대하였다. 남학은 매색의 위고문을 주로 하였는데 당(唐) 태종도 남학을 주로 하였다. 그래서 공영달에게 명하여 『오경정의』를 찬정할 때 상서는 매색본을 저본으로 하고, 또 이것으로 학관에 세웠다.<sup>24)</sup> 위서인 매색의 『고문상서공안국전』이 당 태종의 칙명에 의하여 오경정의 중 하나인 『상서정의』의 저본이 되고 이것이 학관에 세워짐으로써 당대부터 상서의 주요 판본으로 통행되었으며 지금의 『십삼경주소』

24) 앞의 책, 836쪽.

에도 매색본을 이어받은 『상서정의』가 채택되었다.

이어서 김정희는 매색의 『고문상서』가 위작임을 논증한 중국 역대의 상서학자들의 주장을 열거함으로써, 자신의 위서고증을 확증하려 하였다.

주자가 처음으로 매색의 고문이 위작임을 의심하였고, 그 뒤로 매작(梅鷺)과 염백시(閔百詩)·혜정우(惠定宇) 등과 같은 여러 사람들이 자세히 분별하여 밝힘으로써 매색의 『고문상서』가 위작인 것이 모두 남김없이 드러났다.<sup>25)</sup>

매색의 『고문상서』이 위서라는 의혹이 주회에서 시작되어, 매작의 고증을 거쳐서 청대의 염약거·혜진(惠棟)에 이르러 날낱이 위작임이 밝혀졌다고 하였다. 매색의 『고문상서』가 위작임을 의심하고 고증한 것이 주회에서부터 시작되어 염약거와 최술에 이르러 완벽하게 증명된 내력을 김정희에게 보낸 왕희손의 편지에서도 볼 수 있다. 또 옹방강의 문집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김정희의 이러한 논증이 옹방강을 비롯한 청대 고증학자들의 영향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여 진다.

### 3) 蔡沈 『書集傳』의 오류

남송대에 이르러 주희의 제자인 채침이 주희의 명을 받아 상서주석서인 『서집전(書集傳)』을 편찬하였는데, 이것이 『상서정의』를 대신하여 세상에 통행하게 되었으며 고려말기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전래되었다. 『서집전』을 저본으로 한 『서집전대전(書集傳大全)』이 영락제(永樂帝) 때에 편찬되어 세종 18년(1436)에 조선에 전해진 이후 조선왕조 전기간에 걸쳐서 거의 유일본 상서주석서로 통행되었다<sup>26)</sup>. 김정희는 이 『서집전』에 대하여 당태종이 공영달에게 명하여 오경정의를 편찬할 때에 상서는 매색본을 채택하였고 채침의 『서집전』은 매색본을 이어받았다<sup>27)</sup>고 주장하였다. 또 금문·

25) 앞의 책, 837쪽. “自朱子始疑梅古文之僞，厥後有若梅鷺暨又閔百詩·惠定宇諸人，一一辨明，梅僞盡露無餘。”

26) 김만일, 2007, 『조선 17~18세기 尙書 解釋의 새로운 경향』, 경인문화사, 22쪽.

고문이란 관점에서 보면, 매색의 『고문상서』를 저본으로 삼은 『상서정의』의 오류를 답습한 것이라고 하였다.<sup>28)</sup> 『상서정의』에는 마용과 정현의 주석이 많이 남아 있어 이를 통하여 한대의 진고문을 볼 수 있었는데, 채침이 『서집전』에서 이를 폐기함으로써 한대의 진고문이 전해지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서집전』의 폐해를 지적하였다.<sup>29)</sup> 또 채침이 『서집전』의 각 편 앞머리에 금문과 고문으로 분류해 놓은 것이 근거가 없는 것임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채씨의 『서집전』에 ‘금고문이 모두 있다.’라고 한 것은 매우 불명확한 것이다. 『집전』은 공영달의 『상서정의』를 이어받은 데 불과한 것인데, 이것은 곧 매색의 고문이라고 일컬어지는 판본이다. 전혀 복생의 금문의 영향이 미친 곳이 없는 데에도 채침은 갑자기 금문을 인용하여 그 유무를 논하여 마치 복생본의 금문을 배워서 상호 논증한 것처럼 하였으니, 어찌 소자들의 의혹이 더욱 심하지 않겠는가?<sup>30)</sup>

김정희에 의하면, 채침은 『상서정의』 각 편의 앞머리에서 ‘今文古文皆有’, ‘今文無古文有’ 등으로 고문·금문의 유무를 논했지만, 채침은 복생의 금문을 참고하지 않고 단지 매색의 고문과 『상서정의』의 설을 답습하여 이렇게 말하였을 뿐이다. 그러면서도 마치 복생의 금문을 배워서 그것을 가지고 상호 비교하는 증거로 삼은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뒷날 상서를 보는 사람들의 의혹을 더욱 크게 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또 ‘설사 공벽의 진고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문일 뿐인데 이것을 금문을 인용하여 상호대조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물며 금문도 아니고 고문도 아닌 하나의 위서일 뿐인 매색본을 가지고 어떻게 금·고문의 유무를 비교할 수 있겠는가?’라

27) 앞의 책, 837쪽. “唐太宗亦主南學，命孔穎達，纂定五經正義，遂以梅本立之學官，蔡九峰仍之作傳。”

28) 앞의 책, 837쪽. “蔡九峰仍之作集傳。”

29) 앞의 책, 837쪽.

30) 앞의 책, 836쪽. “蔡氏集傳，今文古文皆有云云者，極不明白。集傳不過仍孔穎達正義本而已，即梅賾所稱古文本也。初無伏本今文之影響所及，而忽攬引今文，辨論其有無。有若學伏本今文互證者然，寧不小子之惑滋甚處乎?”

고 하여 매색본이 위작으로써 금·고문 검토의 자료로 사용될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매색본을 근거로 금·고문의 유무를 논한 『서집전』의 오류를 지적하였다.

김정희가 『서집전』을 매색의 위작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논증함에 따라 조선초기부터 유일한 상서주석서의 세상에 통행된 채침의 『서집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서집전』이 매색의 위서를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고증한 김정희 자신부터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김정희는 이 문제에 대해, 매색의 『고문상서』와 『서집전』이 학관에 세워져서 천여 년 동안 통행되어 왔으므로 갑자기 폐할 수는 없다<sup>31)</sup>고 하여, 일단 이 문제를 잠정적으로 보류하였다. 상서의 위서고증은 당시 조선사회에 충격적인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장에서 논하게 될 「위고문십육언설」에 대한 이원조의 비판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 3. 상서 금·고문의 분류와 『서집전』의 금·고문 고증

김정희가 금문·고문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위서를 고증하였으나, 당시 조선에서 주로 사용한 채침 『서집전』의 금문과 고문에 대한 분류는 매우 불분명했을 뿐만이 아니라, 금문·고문에 대한 개념에도 문제가 많았다. 따라서 『서집전』에서 언급한 금문과 고문을 가지고는 위서임을 고증을 할 수가 없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김정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지금 다만 채침의 『서집전』 한 책에만 근거하여, 고문·금문의 동이·득실(同異得失)을 살피고자 한다면 주자가 말한 것처럼 성인에게 영서(郢書)가 있어도 후세에 연설(燕說)이 많게 되는 것이다.<sup>32)</sup>

31) 앞의 책, 837쪽. “惟以立之學官，通行千有餘年之故，不得遽黜之耳。”

32) 金正喜, 「尙書今古文辨下」, 『經學資料集成』, 성대대동문화연구원, 842쪽. “今祇據蔡傳一書，欲考究古文今文同異得失，則朱子所謂聖人有郢書，後世多燕說也。”

‘영서’는 본의 아니게 잘못 만들어진 편지를 뜻이고, ‘연설’은 이러한 편지를 보고 영똥하게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상서의 금문·고문을 고증하는데 있어서 채침의 『서집전』은 ‘영서’처럼 잘못된 내용이 들어 있어 이를 보고 금고·고문을 고증하게 되면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다. 김정희의 「상서금고문변」 하편은 당시의 상서 판본별로 그리고 시대별로 금문·고문이 서로 다르게 사용되어 온 것을 검증하여 정확한 금문과 고문의 진본을 분석하려는 목적에서 집필된 것이었다. 김정희는 「상서금문고문변」 마지막에서,

지금 징험할 만한 진고문에 의거하여 매색의 『고문상서』가 위작임을 바로잡고 채침전의 오류를 고증한다면 금문·고문이 비로소 진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sup>33)</sup>

고 하였다. 매색의 『고문상서』가 위작임을 확정하고 『서집전』의 잘못된 점을 고증하는 것이 김정희의 「상서금고문변」의 주 내용이고, 이를 통하여 상서 금문고문의 진본을 찾고자 하는 것이 김정희의 목적이었다.

김정희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서의 금문·고문을 시대별로 상서판본별로 분류·정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서의 금문·고문의 개념을 정확히 하고자 하였다.

### 1) 금문과 고문의 분류

먼저 김정희는 “금문과 고문은 다르지만, 금문이 또한 고문이고 고문이 또한 금문이다.”<sup>34)</sup>라는 매우 묘한 말을 전제하여 상서를 금문과 고문이 서로 다른 것[今文亦古文], 금문이면서 고문인 것[古文亦今文], 고문이면서 금문인 것[今文古文不同] 세 종류로 구분하였다.

33) 앞의 책, 837쪽. “今據眞古文之可徵者 正梅書之僞 證蔡傳之失 今文古文 始可反眞矣.”

34) 앞의 책, 838쪽. “今文古文不同, 而今文亦古文, 古文亦今文也.”

- ① 今文亦古文
- ② 古文亦今文
- ③ 今文古文不同

① **今文亦古文** : 금문이라고 일컬어지는 복생본 상서는 한 무제 때에 제나라 복생이 구술한 것을 조정의 관리인 조조(鼂錯)가 당시의 글자인 예서로 정리한 것이다. 이것을 진(秦) 이전의 고문자인 과두(蝌蚪)로 작성된 공벽상서와 구별하여 ‘금문상서’라고 하는데<sup>35)</sup> 이것은 문자가 ‘당시의 서체[今體]’였기 때문이다. 이 복생본은 진 병화 이전에 숨겨져 있다가 한(漢)이 일어난 뒤에 나타난 것이니, 나타날 당시까지는 진 이전의 고문자로 되어 있었으므로, “고문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sup>36)</sup>고 하였다. 김정희는 이것을 ‘금문이면서 또한 고문’이라고 한 것이다.

② **古文亦今文** : 공벽본 상서는 공자의 구택 벽간에서 나온 것으로 벽간에 보관되기 전의 과두문자로 씌어진 것이다. 한(漢) 이전의 문자로 씌어진 것이라는 뜻에서 ‘고문상서’라고 하였다. 이 공벽본을 『사기·유립전』에서 “공안국이 금문으로 읽었다.”<sup>37)</sup>고하였으며, 『한서·예문지』에서는 “금문자로 읽었다.”<sup>38)</sup>고 하였다. 금문이란 당시의 문자를 말하는 것이다.<sup>39)</sup> 이것은 발견될 당시는 고문이었지만 공안국이 금문으로 해독하여 읽은 것이기 때문에 김정희가 ‘고문이면서 또한 금문’이라고 한 것이다.

③ **今文古文不同** : 복생에 의하여 한대에 금문으로 출현한 복생본 금문상서는 구양고와 대하후, 소하후에게 전승되어서, 한대에 학관의 과목으로 세워졌다. 이 금문상서가 『상서대전』·『한석경』·『사기』·『한서』·『삼국지주』·『삼도부주』·『상서위』·『상서정의』에 번갈아 나타나는데 고문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것을 김정희는 금문으로서 고문과 다른 것이라고 하였다.<sup>40)</sup>

35) 앞의 책, 838쪽. “伏書之稱今文, 以孔壁書之爲科斗古字, 而別之爲今文, 以文字之爲今體也.”

36) 앞의 책, 838쪽. “其書亦藏於秦火以前, 至漢興出之, 亦未嘗不爲古文也. 此今文亦古文也.”

37) 『史記』, 「儒林傳」.

38) 『漢書』, 「藝文志」.

39) 앞의 책, 838쪽.

## 2) 고문의 분류

김정희는 먼저 한대의 진고문과 매색의 위고문을 진(眞)·위(僞) 두 계통으로 나누고 다시 이것을 동이(同異)로 세분하여 고문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sup>41)</sup>

- ① 眞而同者
- ② 眞而異者
- ③ 僞而異又異者
- ④ 僞而異而又僞者

① 眞而同者 : 여기에 속하는 고문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공자의 구택 벽간에서 발견된 것으로, 공안국이 금문과 비교하니 금문보다 16편이 더 많았는데 이것을 비부에 바쳐서 보관하게 하였으며 후에 유향이 비교·검토하여 기록한 것이다.<sup>42)</sup> 둘째는 공안국이 도위조(都尉朝)에게 전한 것으로, 마응과 정현의 상서 주석으로 이어졌다.<sup>43)</sup> 셋째는 두림(杜林)이 서주(西州)에서 얻은 칠서(漆書)로, 위평과 서순에게 전해진 것이다.<sup>44)</sup> 김정희는 이 세 종류의 고문은 각각 하나의 고문이지만 동일한 고문으로서 ‘眞而同者’라고 하였다.<sup>45)</sup> 여기서 ‘진’이라는 것은 선진시대의 고문상서가 그대로 전래되었다는 것이며, ‘동’이라는 것은 기록한 글자 또한 고문으로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40) 앞의 책, 838쪽.

41) 앞의 책, 843쪽. “古文有眞而同者, 有眞而異者, 有僞而異而又異者, 有僞而異而又僞者.”

42) 앞의 책, 839쪽. “孔安國得其書, 以考二十九篇, 多得十六篇, 獻之藏於秘府, 劉向校錄, 此一古文也.”

43) 앞의 책, 839쪽.

44) 앞의 책, 839쪽.

45) 앞의 책, 839쪽. “然安國之獻之秘府, 與傳之都尉朝, 與杜林之得之西州, 雖各一古文, 而同一古文. 此古文之眞而同也.”

② 眞而異者 : 여기에 속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공안국이 공자 구택에서 출현한 고문을 당시의 문자로 읽고 각 편의 대의를 설명하여 도 위조에게 전한 것이다.<sup>46)</sup> 이것이 공벽본에 공안국이 주석을 붙인 이른바 『고문상서공안국전』이다. 여기에는 고문을 금문으로 읽으면서 공안국이 독창적으로 바꾼 것도 있으며, 그 기이한 일부의 글자는 허신의 『설문해자』에도 간혹 보인다.<sup>47)</sup> 둘째는 공안국이 금자로 읽어서 확정된 『고문상서공안국전』으로서 마옹과 정현본이다.<sup>48)</sup> 이것은 고문으로서 ‘眞而異者’이다. ‘眞’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진고문상서’라는 뜻이며, ‘異’라는 것은 공안국이 금문자로 바꾼 것으로, 거기에는 공안국의 독창적인 것도 있으며 또한 독자적인 해석을 붙인 것도 있어서, 원래의 ‘고문상서’와 달라졌다는 것이다.

③ 僞而異又異者 : 김정희는 매색이 바친 『고문상서』가 마옹과 정현본과는 다른 것이라 하고, 이것을 고문이면서도 ‘僞而異者’라 하였다. ‘위’라는 것은 매색의 『고문상서』가 위작이라는 의미이며, ‘이’라는 것은 당시에 전해지던 마옹과 정현의 고문상서와는 다른 것이라는 의미이다. 김정희는 ‘僞而異者’를 다시 ‘僞而異又異者’와 ‘僞而異而又僞者’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僞而異又異者’는 당(唐) 이전부터 천착하는 무리들이 이본을 만들고자 자부(字部)에 의거해서 경문을 변경한 것이니,<sup>49)</sup> 곽충서의 『고문상서석문(古文尙書釋文)』 등을 말한다.<sup>50)</sup> 이 변경된 경문은 『설문(說文)』·『자림(字林)』·『위석경(魏石經)』 및 모든 기이한 글자를 모아서 만든 것인데, 당(唐) 육덕명의 『경전석문』과는 다른 것이다. 이것은 서초(徐楚)를 비롯해서 조공무(晁公武) 등 많은 사람들이 본 것이며 채침도 이것을 보았다. 따라서 채침의 『서집전』에서 고문이라고 지칭한 것도 바로 이 고문을 말한 것이진고문은 아니다.<sup>51)</sup> 조공무는 촉(蜀)에서 돌에 새겼고, 설계선(薛季宣)은

46) 앞의 책, 840쪽.

47) 앞의 책, 840쪽.

48) 앞의 책, 840쪽.

49) 앞의 책, 840쪽.

50) 앞의 책, 840쪽.

51) 앞의 책, 841쪽.

이것을 취하여 『서고문훈(書古文訓)』을 지었다. 이것이 ‘僞而異而又異’라는 것이다.<sup>52)</sup> 여기서도 ‘僞’라는 것은 매색의 『고문상서』가 위작이라는 것이며, 진고문과는 다르다는 의미이다. ‘又異’라고 한 것은, 이 판본이 매색의 위작인 『고문상서』를 당대에 개변한 것으로 매색이 지은 위고문상서로부터 또다시 달라졌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채침의 『서집전』에서 고문이라고 칭하는 것이 진고문이 아니라, 바로 위작인 매색의 『고문상서』를 당대에 변개시킨 광충서의 고문이라는 것을 김정희가 고증한 것이다. 채침의 『서집전』에서 지칭하는 당대에 개변된 이 고문을 가지고, 고문·금문의 동이(同異) 득실(得失)을 논할 수 없다는 것이다.<sup>53)</sup> 이 점을 고증하여 금문·고문 논의의 혼란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바로 김정희가 「상서금고문변」을 저술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④ 僞而異而又僞者 : 이것은 당나라 때의 위포(衛包)가 매색의 위고문상서를 당시의 문자로 개변한 것을 말한다. 위포가 당시의 문자로 바꾸기 전까지 매색의 위고문상서는 그래도 마응과 정현·왕숙의 상서를 따른 것이었는데, 위포가 다시 이 위고문상서를 바꾸어 어지럽게 만들어, 이후로 상서를 처음으로 배우는 후생들이 매색의 위고문상서조차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sup>54)</sup> 김정희는 이것을 ‘僞而異而又僞者’라고 분류하였다. ‘僞而異’라는 것은 매색의 『고문상서』가 위작으로서 ‘진고문상서’와는 다르다는 의미이며 ‘又僞’라는 것은 위포가 매색의 『고문상서』를 당시의 문자로 변란시킴으로써 매색의 위고문상서를 다시 위작하였다는 뜻이다.

### 3) 금문의 분류

김정희는 금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 한(漢)·위(魏) 때에 금문이라 일컬어진 것과 당(唐) 때에 개정한 금문으로 나누고, 이 양자를 명백하게 구분

52) 앞의 책, 841쪽.

53) 앞의 책, 842쪽.

54) 앞의 책, 842쪽.

해야만 금문과 고문의 동이득실을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55)</sup> 김정희가 이렇게 말한 것은, 당시 금·고문 논의에서 채침의 『서집전』에 나오는 ‘금문’과 ‘고문’이라는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 데서 많은 오류가 생겨났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먼저 김정희는 ‘금문상서’라는 말이 한·위 이후 진(晉) 대로부터 언급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고증하였다.

한·위인들은 다만 구양고·하후의 상서와 고문상서 두 종류만 알고 있었으며, 구양고와 하후씨를 금문상서라 한 것은 전혀 없었다. 한·위인들이 『한서』를 주석하면서도 고문을 가지고 구양고와 하후씨를 구별하였는데 모두 ‘容’은 고문에 ‘容’으로 되어 있고 ‘台’는 고문에 ‘嗣’로 되어 있으며, ‘祖’는 고문에 ‘阻’로 되어있고 ‘隔’은 고문에 ‘擊’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다. 진 이후에 고문상서가 성행함으로써 비로소 금문상서라고 말해서 고문상서와 구별하였다.<sup>56)</sup>

한·위 시대 사람들은 상서를 구양고·하후씨의 상서와 고문상서로만 나누어 인식하였고, 이 당시까지는 금문상서라는 말이 없었다. 후에 진(晉) 때에 고문상서가 흥성하게 되자, 금문상서라는 말을 써서 고문상서와 구별하였다는 것이다. 진 말기의 서광의 『사기음의(史記音義)』에서 ‘今文尙書作不怡’, ‘今文曰惟刑之謐哉’라고 한 것에서 금문상서라는 표현이 쓰이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sup>57)</sup> 실제로 『한서·예문지』나 『사기·유림전』에서 복생의 『상서』가 출현된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을 ‘今文尙書’라는 단어로 지칭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배송(裴松)이 『삼국지』에 주석을 달면서 금문상서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금문상서’ 네 글자가 비로소 나타나게 되었다<sup>58)</sup>고 하였다.

당 천보 3년에 집현전 학사 위포에게 조칙을 내려 상서를 개역하게 하

55) 앞의 책, 838쪽. “今文有漢魏以後所稱之今文, 唐改定今文, 必先明辨乎此而後, 可以言今文古文同異得失矣.”

56) 앞의 책, 841쪽.

57) 앞의 책, 841~842쪽.

58) 앞의 책, 842쪽.

였는데, 이것을 ‘금문상서’라고 하였다. 여기서 금문은 현대의 금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대에 사용되던 글자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당 때에 개정된 금문상서이다.<sup>59)</sup> 김정희는 이 위포가 개역한 금문상서를 채침의 『서집전』이 이어받았다고 하였다.<sup>60)</sup> 위고문상서를 금자로 개정한 위포의 『상서』는,

고문이라고 한다면 공안국본도 아니고 매색본도 아니다. 금문이라고 한 다 해도 또한 구양고와 하후씨본도 아니니 그냥 하나의 위포의 개역본일 뿐이다.<sup>61)</sup>

라고 하여 위포의 『상서』가 고문도 금문도 아닌, 별개의 『상서』가 되어 버렸다고 하였다. 김정희는 금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서집전』의 금문이 현대 복생의 금문이 아니라 당대 위포의 금문이라는 사실을 고증한 것이다.

채침 『서집전』의 ‘고문’은 당대에 개정된 곽충서의 『고문상서석문』을 가리키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진고문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채침 『서집전』의 ‘금문’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위포가 개변한 것을 이어 받은 것인데, 이것은 한대부터 전래 되어온 고문도 금문도 아닌 위포본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금문과 고문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는 채침의 『서집전』을 가지고 금문·고문을 논하게 되면 전혀 엉뚱한 내용을 도출하는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김정희는 「상서금고문변」 마지막에서 금문과 고문의 분석을 통하여 『서집전』의 오류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하였다.<sup>62)</sup> 이것은 김정희가 「상서금고문변」을 저술한 두 가지 목적 중 하나이다.

59) 앞의 책, 842쪽.

60) 앞의 책, 842쪽. “今蔡傳因衛包改定本.”

61) 앞의 책, 842쪽.

62) 앞의 책, 843쪽. “今據眞古文之可徵者, 正梅書之僞, 證蔡傳之失, 今文古文, 始可以反眞矣.”

#### 4. 十六言說의 위서고증

『완당집』에는 김정희의 상서에 대한 논문 성격을 띤 「상서금고문변」과 서간문 속에 보이는 단편적 언급이 몇 군데 있다. 이것으로 김정희의 상서론의 면모를 살펴보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김정희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완당집』의 불완전함을 지적하고 김정희의 글을 찾아서 보완함으로써 그의 면모를 보다 완전하게 파악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완당집』에 수록되지 않은 김정희의 상서에 관한 글 한 편이 응와 이원조(凝窩 李源祚, 1792~1871)의 문집에 수록되어 있다.

이원조의 문집인 『응와집』에 「위고문십육언설변」이라는 글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제목 아래에 두 줄의 작은 글자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추사 김정희가 대정에 유배 와서 「위고문십육언설」을 지어서 보내어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 변을 지었다.<sup>63)</sup>

이원조의 「위고문십육언설변」에 부기된 주석을 통해서 이 글이 김정희의 「위고문십육언설」에 대해 작성한 것이고, 아울러 김정희의 「위고문십육언설」이라는 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원조는 남인 출신 학자로서, 문집을 비롯하여 많은 학문적 저술을 남겼으며 관료로서도 활동하였다. 이원조는 50세에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28개월간 재임하였는데<sup>64)</sup> 제주목사 재임 중에 대정에 유배 온 김정희와 만났던 것으로 파악 된다.<sup>65)</sup> 한주 이진상이 지은 이원조의 행장에는,

63) 李源祚, 1986, 『凝窩全集』, 驪江出版社. 이원조의 「위고문십육언설변」은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에서 발간한 『경학자료집성』 66, 3쪽에도 수록되어 있다.

64) 이세동, 2006, 「응와 이원조선생의 삶과 사람됨」, 『응와 이원조의 삶과 학문』,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편, 61쪽. 이세동의 연구에 의하면 이원조는 50세에서 52세까지 28개월간 재직하였다.

65)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된 기간은 1840~1848년이고 이원조가 제주목사로 재임한 기간은 1841~1843년이다. 이 기간 중 김정희와 이원조가 만났을 것으로 보인다. 이원조의 연보에는 1843년에 만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에 있을 때 십육언(十六言) 전심(傳心)의 요지를 매색(梅蹟)의 위작(僞作)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부군(府君 이원조)이 두 번이나 변을 지어서 물리쳤다.<sup>66)</sup>

라는 내용이 있어 김정희와 이원조가 제주에서 목사와 유배인으로 만나서, 「십육언설(十六言說)」을 보내주고 이에 대해 변을 지은 사실이 확인된다.

현재 김정희의 「위고문십육언설」이 『완당전집』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서 글의 전모를 알 수 없으나,<sup>67)</sup> 이원조의 글 가운데 소개된 김정희의 「위고문십육언설」을 통해서 그 일부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sup>68)</sup> 이원조가 김정희의 「위고문십육언설」 원문 일부를 기록하여 두었기 때문에 원문의 일부를 직접 볼 수 있게 되었다.<sup>69)</sup>

이원조가 인용한 김정희의 「위고문십육언설」과 이원조가 비판한 내용을 가지고 김정희의 「위고문십육언설」의 내용을 분석해 보자. 먼저 ‘십육언’이

66) 李震相, 『寒洲先生文集』 卷38, 「仲父凝窩先生行狀」, “在耽羅時, 有以十六言傳心之旨, 爲梅蹟僞撰者, 府君再作辨而闢之.” (이진상은 이원조의 長姪이다.)

67) 박철상, 2010, 「추사자료의 정리현황과제」, 『秋史研究』 제8호, 추사연구원.

이원조의 「위고문십육언설변」을 소개하면서 「위고문십육언설」은 김정희의 글인데 현전 여부는 알 수 없고 이원조의 글을 통해서 추사의 저술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68) 「위고문십육언설변」에 관해서는 이원조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소략하게 부분적으로 다루어졌다. 대부분 이원조에 초점을 맞추어 언급하는 가운데 김정희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언급하였다.

허권수, 2006, 「응와 이원조의 학문과 한주에 대한 영향」, 『응와 이원조의 삶과 학문』,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편, 127쪽. ; 금장태, 2006, 「응와 이원조의 도학 사상과 시대인식」, 『응와 이원조의 삶과 학문』,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편, 143쪽. ; 김한주, 2006, 「응와 이원조의 문학세계」, 『응와 이원조의 삶과 학문』,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편, 225쪽.

69) 李源祚, 1994, 「僞古文十六言說辨」, 『經學資料集成』 6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4쪽.

이원조는 김정희의 「십언설」이 타당하지 않음을 김정희의 글을 인용하여 그 원래의 글을 가지고 보면[以原書觀之 則...]이란 표현 아래 「십육언설」이 위작임을 주장하는 내용을 인용해놓고, 마지막에 원래의 글은 여기에서 그쳤다[原書止此]고 하였다. 이것으로 이원조가 인용한 이 부분이 김정희의 「십육언설」 원문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란 『상서·대우모』의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闕中.” 열여섯 글자를 가리킨다. 이 열여섯 글자가 위작임을 밝힌, 김정희의 「위고문십육언설」은 대체로 세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순자(荀子)』의 내용을 인용하여 열여섯 글자가 위작임을 고증하였다. 『순자·해폐(解蔽)』에서 도경(道經)의 말을 인용한 가운데 ‘人心之微, 道心之危’라는 말이 나오는데, 『상서·대우모』의 ‘人心惟危 道心惟微’는 바로 『순자』의 「해폐」 편에서 가져온 말이라는 것이다.<sup>70)</sup> 김정희는 이 구절이 원래 상서에 있는 말이 아니라 매색이 『순자』를 보고 위작한 것으로 보았다.

둘째, 염약거의 『고문상서소증』을 인용하여 위작을 증명하였다. 염약거는 “『순전·해폐』편에는 ‘精於道 一於道’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바꾸어서 ‘惟精惟一’이라는 네 글자를 만들고, 『논어』에 나오는 ‘允集闕中’ 네 글자를 이어 붙여 앞의 ‘人心惟危 道心惟微’와 합하여 모두 열여섯 자를 매색이 만들었다. 매색의 『고문상서』라는 것이 대개 이와 같이 만들어진 위작이다.”<sup>71)</sup>라고 하였다. 이 부분은 김정희가 염약거의 『고문상서소증』의 내용을 인용하여 ‘십육언’이 매색의 위작임을 증명하려는 것이다. 사실 「십육언설」에 대한 『고문상서소증』의 고증과 비교해보면, 김정희의 「위고문십육언설」은 전체가 염약거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앞의 『순자·해폐』 편의 내용도 이미 『고문상서소증』에 인용된 부분이며, ‘造語精密’ 같은 내용도 『고문상서소증』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김정희가 염약거의 설을 이용하여 자신의 설로 다시 체계를 세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순자』라는 책은 조어가 정밀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십육자의 의미는 옛날 성인이 서로 전해온 정밀한 말로서, 다만 『순자』에서 이 말이 나왔을 뿐이다. 『순자』에 나오는 말을 바꾸어서 문장을 만든 것을, 위작한 것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 말을 없앨 수는 없다고 하였다.<sup>72)</sup> 『상서·대우모』의 열여섯 자가 『순자』에 먼저 나온 것이며, 이것을 매색에 변개하여 만

70) 앞의 책, 4쪽.

71) 앞의 책, 4쪽.

72) 앞의 책, 3쪽.

든 위작이라 할지라도, 옛 성인이 서로 전해온 정밀한 뜻이 담긴 말이기 때문에 폐할 수는 없다는 것이 김정희의 결론이다.

이상에서 이원조가 소개한 김정희의 「고문십육언설」을 정리해보면, 『상서·대우모』 열여섯 글자는 원래 상서에 있는 글이 아니라, 『순자』에 나오는 말을 바꾸어서 문장을 만든 매색의 위작이라는 것이다. 김정희는 이 열여섯 자가 위작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순전」의 내용과 염약거의 설을 인용하였다. 염약거는 주희에서부터 시작된 매색의 『고문상서』가 위작이라는 의심에 종지부를 찍고 위작임을 고증한 청 대의 학자다. 『완당집』의 「상서금고문변」에서는 염약거의 이름만 거론될 뿐,<sup>73)</sup> 그의 위서고증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서 김정희가 『고문상서』의 위서고증에서 염약거의 『고문상서소증』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이원조의 「위고문십육언설변」에 소개된 김정희의 원 글에서는, 염약거의 『고문상서소증』을 인용하여 자신의 『고문상서』 위작설의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직접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완당집』의 「상서금고문변」에서는 금문과 고문의 비교와 그 전래과정을 통하여 매색의 『고문상서』가 위작임을 고증하였을 뿐, 상서 경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비교·검토함으로써 매색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언급한 것은 없었다. 그러나 「위고문십육언설」을 통하여 상서 경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위서 고증이 시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마 『완당집』에 수록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구체적인 상서 경문을 통한 위서고증은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원조의 글에서 확인된 김정희의 위서고증은 그 구체적인 내용과 더불어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즉 염약거의 설을 인용하였다는 점과, 상서 경문을 통한 위서고증을 시도하였다는 점을 확인해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김정희는 「상서금고문변」에서 매색의 『고문상서』가 위서라는 사실을 고증하였고, 이 위고문상서는 당대의 『상서정의』를 거쳐서 채침의 『서집전』

73) 金正喜, 「尙書今古文辨下」, 『經學資料集成』, 성대대동문화연구원, 837쪽. 김정희는 「상서금고문변」에서 매색의 『고문상서』의 위작에 대한 의심이 주희에서부터 시작되어 염약거에서 위작임이 남김없이 드러났다고 하였다.

에까지 전해졌다고 논증하였다. 조선시대 수백 년간 사용해온 상서 주석서가 위서라는 논증은 조선사회에서는 난감하고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서집전』은 학관에 세워지고 천여 년간 세상에 통행된 것이므로 갑자기 폐지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린 데에서 김정희의 고민을 읽을 수 있다. 「위고문십육언설」 또한 당시의 지식인들에게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였다. 이 열여섯 자는 성인이 서로 전해온 심법으로 존송되었고, 심성론의 근거가 되는 상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 구절을 위작으로 고증하는 내용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김정희의 「위고문십육언설」에 대한 이원조의 집적적인 비판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sup>74)</sup>

첫째는 고증학에 대한 비판이다. 이원조는 자신은 단 하루도 고증에 노력을 기울인 일이 없다고 하여 경전을 ‘고증’하는 태도에 거부감을 보였다.<sup>75)</sup> 그는 경전에 대하여 고증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심학의 정미하고 심오한 의미를 구하지 않고 언어와 문자 상의 고증과 변별을 통하여 지엽적인 것만을 믿고 근본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sup>76)</sup> 이러한 고증학적인 방법은 조선에서 나온 것도 아닌데 조선에서 경전주석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취하였다.

둘째는 「대우모」의 ‘십육언’은 성인이 서로 전해오는 심법이라서 그 심오한 뜻을 위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전에도 의심할 만한 구절이 없지는 않겠지만 「대우모」의 ‘십육언’은 성인이 서로 전한 심법이라 성인의 도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이고 주자와 정자가 드러내고 후학이 존신해 연구해 온 것인데, 과연 순경이 말할 수 있는 것이며 매색이 만들 수 있겠는가<sup>77)</sup>라고 반문하며 위작이 불가능함을 지적하였다. 다른 구절은 위작할 수 있어도 이 조목만은 위작할 수 없다는 것이다.<sup>78)</sup> 그래서 위작임을

74) 김정희의 「위고문십육언설」에 대한 이원조의 비판은 김정희의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에 이어서 매색의 『고문상서』 위작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비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75) 李源祚, 1994, 「僞古文十六言說辨」, 『經學資料集成』6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쪽. “愚於放校之學, 未嘗下一日之工.”

76) 앞의 책, 4쪽.

77) 앞의 책, 1쪽.

주장하는 자들이 그 위작으로 의심할 만한 곳을 분명하게 지적하지 못하니, 고증의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sup>79)</sup> 이 십육언만은 진의 병화 중에도 온전히 전해 온 진본으로서 이것은 하늘의 뜻이 아닐 수 없다고 하며 십육언이 진본임을 확신하였다.<sup>80)</sup>

셋째는 김정희가 염약거의 설을 인용하여 고증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한 비판이다. 십육언의 위작설은 경전의 의미를 말에서만 찾고 마음에서는 찾지 않는 병폐 때문인데, 김정희를 비롯한 고증학자들이 위서를 고증할 때 사용하는 ‘造語精密’, ‘相傳精言’ 등의 표현을 통하여 말에만 집착하는 병폐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81)</sup> 경전의 해석을 지엽적인 어구에서만 찾으려한다는 비판이다. 또한 “십육언이 성인이 ‘서로 전하는 정밀한 말(相傳精言)’이라면, 어찌 말을 꾸미고 문장을 만들어 위작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위작에서 나온 것이라면 어찌해서 그 말을 폐하지 못하는가?”<sup>82)</sup>라 하며 비판하였다. 위작에 대한 고증이 상호 모순되고, 위작임을 고증하고서도 확신하지 못하는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 이원조는 이러한 지적과 비판의 말미에 앞뒤가 서로 모순되고 말뜻이 잘못 전해져 엉뚱한 결론을 내게 되었으니 괴이할 뿐만이 아니라고 하였다.<sup>83)</sup>

## 5. 맺음말

지금까지 김정희의 「상서금고문변」과 『응와집』에 수록된 「위고문십육언설」을 통하여 김정희의 상서·금문고문과 위서 고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김정희는 한대에 출현된 상서를 복생의 금문본·공벽본의 상서고문본·일서 16편으로 그 계통을 나누고 각각의 편목의 구성을 상세하게 검증하였

78) 앞의 책, 1쪽.

79) 앞의 책, 1쪽.

80) 앞의 책, 1쪽.

81) 앞의 책, 1쪽.

82) 앞의 책, 2쪽.

83) 앞의 책, 2쪽.

다. 편목 비교를 통하여 매색의 『고문상서공전』이 한대의 금문과 고문 어느 것보다도 연관되지 않는 것을 고증하였다. 이어서 금문학과와 고문학과를 검토하여 매색본이 어느 것에도 근거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이러한 분석을 시도한 이유는 한대의 금문 고문을 매색의 『고문상서』와 비교를 통하여 매색본이 위서임을 논증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김정희는 매색의 『고문상서』가 한대의 금문상서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고문상서와도 연결되지 않는 금문도 아니고 고문도 아닌 위작일 뿐이라고 결론지었다.

금문도 고문도 아닌 매색의 『고문상서』는 남북조시대 남학에서 주요하게 취급하였고, 남학의 계통을 이은 당태종이 오경정의를 편찬할 때, 매색의 『고문상서』를 『상서정의』의 저본으로 삼게 함으로써 매색의 위고문상서는 학관에 채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통행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매색본이 오늘날에까지 상서 주석본으로 중요시된 그 시원을 밝힌 것이다.

고려 말에 전래되어 김정희가 살고 있던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거의 유일한 상서 주석서가 된 채침의 『서집전』이 매색의 『고문상서』를 이은 것임을 논증하였다. 『서집전』의 금문 고문은 『상서정의』를 따른 것이니, 곧 매색의 설을 따른 것이 된다. 그런데도 채침이 『서집전』에서 금문을 마치 북생에게서 배운 듯이 하여, 뒷사람의 의혹을 부풀리게 하였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조선시대를 관통하여 사용되어온 채침의 『서집전』은, 당연히 언해본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전적으로 의거할 만큼 통일된 해석본으로 모든 상서학자의 교과서였다. 이런 위치의 『서집전』이 금문도 고문도 아닌 매색의 위작을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논증한 것은 당시의 학자들로서는 매우 난처하고도 민감한 문제였다. 그래서 김정희 자신도 스스로 위서고증을 해놓고서도 천여 년간 세상에 통행되어온 것이라 갑자기 폐할 수는 없다고 토로하였다. 김정희의 이러한 진술은 상서의 위서 고증이 조선사회에 던진 파문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정희는 금문을 두 가지로 나누고, 고문은 네 가지로 나누어 전래과정과 내용의 변천에 대해서 고증하였다. 고문은 한대의 진고문과 매색의 위고문으로 분류하고 이것을 다시 네 가지로 나누었다. 고문을 분류 검토하는 가운데 매색의 위고문이 당(唐) 대에 글자를 개작하여 곽충서의 『고문상

서석문』으로 저술되었음을 밝혔다. 『서집전』의 고문이란 바로 이 당대에 개작된 고문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고증하였다. 김정희의 고문에 대한 분류와 고증은 바로 『서집전』에서 고문이라 한 것이 한대의 진고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고문이라는 점을 밝히려는 것이었다.

김정희는 금문에 대한 분류에서도 한대의 금문과, 당 대에 위포에 의해서 당시의 금문으로 개작된 금문이 있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이 양자를 명백하게 구분해야만 금문과 고문의 동이 득실을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 금문의 두 분류가 전혀 서로 다른 것임을 논증하고 이어서 채침의 『서집전』에서 말한 금문이라는 것은 곧 위포가 개작한 금문임을 고증하였다. 결국 「상서금고문변」 하편에서 금문과 고문의 갈래를 나누고 변천과정을 논증한 것은, 채침의 『서집전』에서 말하는 금문과 고문이 한대의 금·고문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밝히려는 것이다. 『서집전』의 금문·고문에 대한 개념이 한대의 금·고문과 전혀 다른 것임을 밝힘으로써, 『서집전』 한 책에만 근거하여 금문·고문을 논하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 개입되어 잘못된 해석을 가져올 뿐이라고 하였다. 김정희가 금문과 고문의 갈래를 나누어 고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당시 조선에서는 주로 사용되던 『서집전』의 금문·고문은 한대의 금문 고문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금문 고문을 논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아울러 이런 잘못된 금문·고문의 개념으로는 매색의 『고문상서』가 위작임을 밝혀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채침의 『서집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밝힐 수 없는 것이다.

김정희의 「위고문십육언설」은 「대우모」의 ‘인심도심’론에 대한 열여섯자가 상서 본래의 문장이 아니고 『순자』의 내용을 가지고 매색이 재구성한 것임을 논증한 것이다. 이것은 그의 글에서도 염약거를 인용하고 있듯이 염약거의 『고문상서소증』의 내용을 김정희가 정리한 것이다. 김정희의 이 글은 『완당집』에 수록되어 있지 않고, 이원조의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데, 제주목사로 부임한 이원조가 같은 기간에 대정에 유배 온 김정희에게서 받은 글을 보고 반박한 내용이다. 이원조의 비판은 경전에 대한 고증학적 해석을 비판하고 위고문십육언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거론 비판한 것이다.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의 열여섯 자는 성리학의 심성

론의 근거로서 많은 학자들이 이 상서의 구절에 주석을 달고 해석을 통하여 심성론을 전개해온 매우 중요한 구절이다. 이것을 위작으로 규정한 것은 당시 조선의 성리학자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였다. 그래서 우선 이 글을 직접 접한 이원조가 이를 반박하였으며 그 후로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정희의 「상서금고문변」은 그의 글 말미에서 언급한 것처럼 금·고문에 대해 분석·정리하여, 매색의 『고문상서』가 위작임을 밝히고 채침의 『서집전』의 금문·고문에 대한 논의가 잘못되었음을 바로잡으려는 것이었다. 김정희는 상서 경문에 대한 주석은 시도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금문·고문을 통한 문헌고증에만 주력하였음을 그의 저술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조선시대 상서주석은 주로 경문의 해석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어왔으며 17세기에 이르러서야 상서 자체에 대하여 문헌고증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다. 상서에 대한 문헌고증은 성호 이익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성호는 위서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산에 이르러 매씨서평에서 위서고증의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김정희는 금문 고문을 기준으로 위서고증을 시도하였다. 본 논고에서는 김정희의 금·고문론과 위서고증의 내용과 성격만을 분석 고찰하는데 그쳐, 그의 상서론이 조선 후기 상서학사 특히 금·고문론에서 어떠한 위치와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 구명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아 직까지 우리 학계의 상서에 대한 연구가 여기에 까지 미칠 만큼 그 연구 성과가 충분하지 못한 점도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김정희는 자신의 상서에 관한 글이 옹방강의 것과는 크게 다른 것이라고 하였지만, 그의 상서에 대한 저술은 옹방강을 비롯하여, 염약거·왕희손 등 청대의 학자들의 학설에 영향을 받은 바가 많다. 이러한 면도 본 논고와 관련하여 반드시 구명되어야 할 논제이나 그 내용이 광범위하여 별도의 논고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논고를 후속과제로 기약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논문제출: 5월 16일, 심사마감: 5월 31일, 게재결정: 5월 31일

## 참고문헌

### 자료

『尙書』

『漢書』

『史記』

『隨書』

金正喜, 『阮堂全集』

金正喜, 「尙書今古文辨」, 『經學資料集成』65, 성대대동문화연구원.

李源祚, 「僞古文十六言說辨」, 『經學資料集成』6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李震相, 『寒洲先生文集』

### 논저

김만일, 2007, 『조선17-18세기 尙書 解釋의 새로운 경향』, 경인문화사.

김장태, 2006, 「응와 이원조의 도학사상과 시대의식」, 『응와 이원조의 삶과 학문』,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편.

김한주, 2006, 「응와 이원조의 문학세계」, 『응와 이원조의 삶과 학문』,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편.

박철상, 2010, 「추사자료의 정리현황과제」, 『秋史研究』8, 추사연구회.

全海宗, 1963, 「清代學術과 阮堂」, 『大東文化研究』1, 성균관대학교대동문화연구원.

허권수, 2006, 「응와 이원조의 학문과 한주에 대한 영향」, 『응와 이원조의 삶과 학문』,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편.

藤塚鄰 著, 윤철규·이충구·김규선 옮김, 2009, 「秋史 金正喜研究(原題: 清朝文化 東傳의 研究)」, 과천문화원.

Abstract

Chusa(秋史) Kim Jeonghui(金正喜)'s Demonstration of Authenticity of the “New Text” and the “Old Text” Chapters in *Shangshu*(尚書)

Kim Man-il

This thesis is on Chusa(秋史) Kim Jeong-hui(金正喜)'s demonstration of authenticity of two versions of *Shangshu*(尚書; *Sangseo* in Korean), a.k.a. *the Book of Historical Documents* through analyzing his *Sangseo Keumkomun Byun* (尚書今古文辨), *Demonstration of Jinwen and Guwen versions of Shangshu* and *Wikomun Sipyukeonseol Byun* (僞古文十六言說辨), *Demonstration of Kim Jeonghui's Comment on the Forged Guwen Sixteen-letter Phrase* included in *Eungwajip* (凝窩集) by Yi Won-jo(李源祚). *Shangshu* had had two versions from Han dynasty. One version was written in Jinwen (今文; the "Old Texts"), and the other was written Guwen (古文; the "New Texts"). Guwen version is also known as the version of Mei Ze(梅賾) who found and presented it to an emperor in Eastern Jin(東晉) dynasty. Mei Ze's version was *Guwen Shangshu Kong Anguo Zhuan* (古文尚書孔安國傳), *Guwen Shangshu annotated by Kong Anguo*. The authenticity of two versions had been a highly controversial topic in the study of Confucian classics. Kim Jeong-hui added his own historical consideration and analysis to the long list of controversy.

Kim Jeong-hui classified *Shangshu* into three groups that were a Jinwen version, a Guwen version, and a scattered and lost version. He analyzed the table of contents of Mei Ze's version, and compared it with Jinwen and Guwen versions of Han dynasty. He concluded that Mei Ze's was a fabricated book. He also ascertained that Mei Ze's was selected to *Shangshu Zhengyi* (尚書正義) in *Thirteen*

*authorized compilation of Confucian classics* compiled in Tang dynasty, and that Zhu xi (朱熹)'s disciple Cai Chen (蔡沈)'s *Shujizhen* (書集傳), *annotation of Shangshu* adopted Mei Ze's version. Kim Jeonghui's argument gave Chosun a shock because Cai Chen's *Shangshu* was the most influential in Chosun dynasty.

Kim Jeonghui classified Guwen *Shangshu* into four groups and Jinwen into two groups. Through this classification he demonstrated that Guwen and Jinwen *Shangshu* labelled by Cai Chen in his *Shujizhen* cannot be the original Guwen and Jinwen versions in the days of Han dynasty. He emphasized that the demonstration of Jinwen and Guwen *Shangshu* on the basis of Cai Chen's classification, therefore, would be misled into the wrong conclusion. Chosun dynasty became to acknowledge the fallibleness of Cai Chen's *Shujizhen* by Kim's raising a question.

Kim Jeong-hui's *Wikomun Sipyukeonseol* (僞古文十六言說), *Comment on the Forged Guwen Sixteen-letter Phrase in Shangshu* is not included in his own collection of works called *Wandangjip* (阮堂集), but partly included in Yi Won-jo's collection called *Eungwajip*. In his demonstration Yi criticized Kim's argument, and Kim's original comment can be inferred from Yi's writing. Kim Jeonghui insisted that the Sixteen-letter Phrase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The mind of man is restless, prone to err; its affinity for the right way is small. Be discriminating, be undivided, that you may sincerely hold fast the Mean.) in *Shangshu's Dayumo* (大禹謨: *the Counsels of the Great Yu*) Chapter was from Xunzi (荀子), and that Mei Ze rephrased and manufactured it. This was rearranged from Yan Ruoqu (閻若璩)'s *Shangshu Guwen Shuzheng* (尙書古文疏證), *A Critical Commentary on the "Old Texts" Chapters in Shangshu*. Yi Wonjo held an unfavorable opinion of Kim's argument by saying that

the Sage's mind cannot be demonstrated by syntactic analysis. Yi maintained his opinion that the Sixteen-letter phrase must be a genuine saying of the ancient Sage, and that therefore it cannot be manufactured in after ages.

Kim Jeong-hui adopted various achievements of Qing dynasty scholars such as Yan Ruoqu, and attempted his own demonstration on the fabricated "Old Texts" chapters of *Shangshu*. This thesis gave the first attention towards a hitherto unknown text of Kim Jeonghui's comment on *Shangshu* in Yi Won-jo's writing, and attempted to investigate how Kim developed his argument on the text of *Shangshu*, which will help to grasp an entire picture of his study on Confucian classics.

### Key words

- Kim Jeong-hui, *Sangseo Keumkomun Byun, Demonstration of Jinwen and Guwen versions of Shangshu*, Mei Ze, fabricated "Old Texts" *Shangshu*, Cai Chen, *Shujizhen*, Yi Won-jo, *Wikomun Sipyukeonseol, Comment on the Forged Guwen Sixteen-letter Phrase in Shangshu*